『종교와 문화』 제 42호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22. pp. 203-231.

존 밀뱅크의 「재난들 사이에서(“Between Catastrophes”)」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 영 원**

Ⅰ. 서론
Ⅱ. 코로나 상황에서의 예배의 문제
1. 예배당의 폐쇄와 세속화
2. 월터 부르그만의 성서적 접근과 개혁신학의 비판
Ⅲ. 코로나 팬데믹과 생태 위기
1. 생태 신학과 선물의 호혜성
2. 선물의 호혜성과 일방성 그리고 코로나의 비판적 함의
Ⅳ. 결론

Ⅰ. 서론

존 밀뱅크(John Milbank)는 영미권에서 점점 그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는 급진 정통주의(Radical Orthodoxy) 신학을 주도하고 있는 학자이다. 밀뱅크가 그래이엄 워드(Graham Ward), 캐서린 픽스톡(Catherine Pickstock) 등과 함께 이끌어 가고 있는 급진 정통주의는 계몽주의 이후 생겨난 신학적 문제와 세속 문제 전반을 해결

* 이 논문은 2022년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심사과정에서 훌륭한 논평을 해 주신 심사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 장로회신학대학교 조직신학과 조교수

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교부 전통, 특별히 어거스틴 전통의 회복과 그를 바탕으로 한 신학적이고 비신학적인 문제 전반의 재해석을 주장한다. 이 운동의 주축은 영국 성공회 계열의 학자들이지만 스티븐 롱(Stephen Long)과 제임스 스미스(James K.A. Smith)와 같은 개신교 신학자들도 비판적인 입장에서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근에 밀뱅크의 주저인 『신학과 사회이론』(*Theology and Social Theory*) (2019)이 번역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밀뱅크는 최근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여 「재난들 사이에서: 신, 자연과 인류 (“Between Catastrophes: God, Nature and Humanity”)」[1]를 발표하였는데, 이 글에서 그는 코로나 상황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에 관한 해석과 제안을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의 여러 제안 중에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한국 사회에서 가장 첨예하게 논의된, 대면 예배의 문제를 먼저 다룰 것이다. 그는 여기에서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가 간과했던 현대 사회의 세속성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 글에서는 밀뱅크가 지적한 세속성의 문제를 구약학자 월터 부르그만(Walter Brueggemann)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개혁신학적 입장에서 비판함으로써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의 종교시설의 폐쇄 문제에 관한 밀뱅크의 주장을 성서학적이고 개혁신학적인 관점에서 재조명해 볼 것이다. 이어서 코로나 팬데믹의 생태 신학적 의미에 관한 밀뱅크의 주장을 참여(participation)와 선물(gift) 개념을 통하여 분석한 후, 이를 캐서린 태너(Kathryn Tanner)의 대안적 선물 개념의 입장에서 비판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재식의 코로나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밀뱅크가 밝히지 못한 코로나의 생태학적이고 비판적 함의를 드러낼 것이다.

---

1) 이 글은 처음에 팬데믹과 형이상학의 극복에 관련된 특별 논문집의 한 부분으로 나타났다. John Milbank, “Between Catastrophes: God, Nature and Humanity,” *Revista Portuguesa de Filosofia* 77(2-3) (2021): 489-500. 그리고 이후 결론 부분에 생태학적인 고찰이 보강되어 팬데믹과 생태학의 문제를 다루는 책의 한 장으로 출판되었다. “Between Catastrophes: God, Nature and Humanity,” in *Pandemic, Ecology and Theology: Perspectives on Covid-19*, ed. Alexander J. B. Hampton (London: Routledge, 2021), 78-89. 본 논문에서는 생태학적인 고찰이 보강된 『팬데믹, 생태학 그리고 신학』에 등장한 글을 인용하고 분석할 것이다.

Ⅱ. 코로나 상황에서의 예배의 문제

1. 예배당의 폐쇄와 세속화

국내외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과 학자들은 코로나 상황에서 종교적이고 영적인 활동보다는 의학적인 문제에 우선권을 두었다. 이러한 선택에 관하여 밀뱅크는 일리가 있는 결정이지만, 이러한 결정과 규제에 저항했던 사람들의 행동도 분명 의미 있는 행동이었다고 주장한다:

> 한편으로, 전쟁이나 전염병을 맞이해서 채택된 조치들이 실제로 완전히 영속적이기를 의도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히스테리적 반응이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체현된 창조물들이기 때문에, 그저 살아감(mere living)은 사실 실존의 더 고양된 양태의 토대이기도 하다. 다른 한 편으로, 우리는 전쟁 시의 비상조치가 좋든 나쁘든 자주 지속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또한 교회들은 너무 불필요한 정도로 자주 폐쇄되었으며, 가장 마지막에 열릴 장소로 여겨졌다는 사실은 우려스럽게도 명백하다. 왜냐하면 교회는 헐벗은 삶(bare living)과 헐벗은 경제적 생존(bare economic surviving)에 비하여 작은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2)]

팬데믹 상황에서 종교 건축물들을 가장 빈번하게 그리고 과도하게 폐쇄하고 가장 나중에 개방하는 조치가 채택된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상시국에 어쩔 수 없이 시행된 조치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현대 사회에서 지배적인 인간존재에 대한 가치판단을 명백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밀뱅크는 보고 있다. 현대 사회는 종교적이고 영적인 삶의 양태보다는 최소한의 경제적 생존이라고 하더라도 세속적인 삶의 형태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팬데믹 상황 가운데 정부와 사회가 채택한 조치는 보여주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밀뱅크가 세속주의(secularism)에 관해 가지고 있는 태도와 계

---

2) Milbank, “Between Catastrophes,” 83.

획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밀뱅크는 급진 정통주의 신학의 동료들인 워드와 픽스톡이 함께 쓴『급진 정통주의- 새로운 신학(*Radical Orthodoxy - A New Theology*)』 서문 첫머리에서 "현재 몇 세기 동안, 세속주의가 세계를 규정하고 건설해 왔다. 이 세계에서 신학적인 것은 신빙성이 없거나 개인적으로 헌신하는 해가 없는 활동으로 변화된다"[3]라고 평가한다. 그리고 이 세속화된 세계가 촉진하는 것은 "영혼이 없고, 공격적이고, 무심하며, 그리고 허무주의적인 물질주의"라고 비판하면서, "세계의 관심과 활동을 신학적 틀 안에 위치시킴으로써 세계를 되찾기"를 시도한다.[4] 즉, 오늘날 세속이라고 불리는 모든 영역을 신학적으로 해석함을 통하여 세속화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밀뱅크의 비전이다.[5] 급진 정통주의에 참여하고 있는 복음주의 신학자 K. A. 스미스에 따르면, 밀뱅크를 대표로 하는 급진 정통주의는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주장에 머물지 않고, 세속적이라고 명명되는 모든 요소에 대해 신학적인 설명을 함으로써 성과 속의 구분을 없애는 탈세속적인(post-secular) 신학을 지향한다고 본다.[6]

이 글에서 밀뱅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격리와 소외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이 세속화의 내적 진실을 자본과 권력이라고 보고 있다: "자연적 위험으로부터의 격리의 반대면은 자본과 권력의 결합에 의한 거대하고 일반화된 위험을 암묵적으로 채용하는 일이며, 이는 실제로 우리 모두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병의 위험에, 궁극적으로는 죽음의 위험에 항상 노출시키는 것이다."[7] 사실 코로나 팬데믹이 일정 부분 인간의 자본과 권력의 확장으로 인한 인재라는

---

3) John Milbank, Graham Ward, and Catherine Pickstock, "Introduction: Suspending the Material: the Turn of Radical Orthodoxy," in John Milbank, Graham Ward, and Catherine Pickstock eds., *Radical Orthodoxy: A New Theology* (London: Routledge Press, 1999), 1.

4) Milbank, Ward, and Pickstock, "Introduction," 1.

5) John Milbank, *Theology and Social Science: Beyond Secular Reason* (Oxford: Blackwell, 1990), 9; "Political Theology and the New Science of Politics," in John Milbank and Simon Oliver ed., *The Radical Orthodoxy Reader* (London: Routledge, 2009), 178.

6) James K. A. Smith, *Introducing Radical Orthodoxy: Mapping a Post-secular Theology* (Grand Rapids: Baker Academics, 2004), 73-74.

7) Milbank, "Between Catastrophes," 84.

점을 고려할 때(이 부분은 다음 장의 생태학적 분석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를 해결하는 노력조차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한 다국적 제약회사들과 선진국들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밀뱅크의 입장에서는 자본과 권력이라는 가치로 인간을 평가하는 세속화가 팬데믹 상황 가운데 극에 다다랐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주장한다:

> 그러한 방식으로 위험을 소거하면서 생명에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는 우리가 실제로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경제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자유주의는 허무주의이며 전도이다: 만약 부정적인 자유만이 중요하다면, 이것은 물질적 힘의 억제를 소거함이며 결국 죽음과 같다. 그렇다면, 교회들은 이 위기 가운데 그렇게 조용하게 지나가거나, 그렇게 착실하게 성스러운 공간들을 보이지 않게 하는 일에 공모하지 말았어야 했다.[8]

여기에서 밀뱅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종교시설들에 대해 취해진 강력한 폐쇄조치 뒤에 있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세속적 권력의 연합으로 인한 인간의 성스러운 가치의 박탈을 문제 삼고 있다. 물론, 그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코로나 상황에서 무조건 종교시설의 폐쇄를 거부해야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단지, 그 상황에서 드러난 세속화의 민낯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며, 이러한 세속화의 은밀한 전략을 파악했다면, 종교인들은 이에 관해 무언가 현실적인 행동을 취했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결국 코로나는 세속화된 사회 안에서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거룩한 장소에까지 세속화의 힘이 얼마나 치밀하고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명확한 예가 되었다.

급진 정통주의에서 이런 세속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세속화 이전의 신학적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세속화된 영역에 대한 신학적인 비판과 해석작업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영역이 초월적 신의 신비에 참여하는 거룩한 세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때 그가 비판의 근거이자 거룩성의 패러다임으로 여기는 근대 이전의 사

8) Milbank, “Between Catastrophes,” 84.

상은 교부적이고 중세적인 사상 전반을 의미하며 무엇보다도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기독교화된 플라톤적인 참여(participation, methesis)이다.[9] 세속화가 의지하고 있는 근대적 이성의 보편성과 지배력이 데리다와 같은 포스트모던 사상가들의 비판으로 인해 무너진 지금의 상황에서, 세속성은 결국 그 우연성과 유한성으로 인하여 허무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다.[10] 밀뱅크는 무한하고 초월적인 신에 참여하는 아우구스티누스적인 비전만이 이런 상황에서 모든 존재에 진정한 의미를 담보해 줄 수 있다고 본다.[11] 더 나아가 이러한 비전은 근대 세속화의 문제인 정신/물질의 이분법을 극복한 새로운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12] 이와 관련된 또 다른 비판과 대안의 근거는 성육신적이고 삼위일체적인 세계관이다.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밀뱅크의 코로나에 대한 생태학적인 고찰에서 더욱 잘 나타나므로 다음 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구약성서학자인 부르그만은 밀뱅크가 이 문제를 지적하기 전 코로나 초기에 코로나 이면에 있는 세속화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신학적 반응을 제시하였다.[13] 부르그만의 성서적 접근을 면밀하게 살펴볼 때, 밀뱅크의 급진 정통주의적 접근의

---

9) Milbank, Ward, and Pickstock, “Introduction,” 2-4. 또한 다음을 참조하라. John Milbank, "Postmodern Critical Augustinianism: A Short Summa In Forty Two Responses To Unmasked Questions," *Modern Theology* 7-3 (1991): 225-37.

10) Milbank, Ward, and Pickstock, “Introduction,” 3.

11) Milbank, Ward, and Pickstock, “Introduction,” 4.

12) Milbank, Ward, and Pickstock, “Introduction,” 4. 또한 다음을 참조하라. K. A. Smith, *Introducing Radical Orthodoxy,* 75-76.

13) 코로나에 관한 기독교 성서학자들의 다양한 입장을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Francois Tolmie & Rian Venter, “Making sense of the COVID-19 Pandemic from the Bible – Some Perspectives,” *HTS Teologiese Studies/ Theological Studies* 77(4) (2021): 1-9. 여기에서 저자들은 부그르만, 톰 라이트(Tom Wright)를 포함한 동서양의 다양한 성서학자들의 반응을 소개하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에서 성서학자들의 입장을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안명준 외 17명,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서울: 다함, 2020), 72-116. 이 책에서 최순진, 최만수, 황원하, 김영호는 구약과 신약에서 나타난 전염병에 대한 기록과 반응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본 논문에서 밀뱅크의 분석을 중심으로 집중하고 있는 코로나 이면에 있는 혹은 코로나가 극명하게 드러내어 준 세속화와 근대사회의 문제에 관한 관심과 분석이 없다는 것이다.

한계성을 발견할 수 있다.

2. 월터 부르그만의 성서적 접근과 개혁신학의 비판

부르그만은 『신앙에로의 부름으로서의 바이러스』(*Virus as a Summons to Faith*)에서 ‘전염병’에 관하여 구약성경에 나타난 세 가지 해석의 가능성을 설명한다.[14] 첫 번째 가능성은 “언약의 집행방식(transactional mode of covenant)”이다.[15] 구약성경 레위기(특별히 26:23-26)와 신명기(특별히 28:21-34)에는 전염병(pestilence)이 칼과 기근과 함께 언약 질서를 위반한 사람들을 향한 심판의 방편으로 등장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코로나 팬데믹은 신의 질서를 깨드린 데 대한 심판으로 간주된다. 두 번째 가능성은 “야훼의 목적을 위한 능력의 실연(YHWH’s purseful enactment of force)”이다.[16] 출애굽기의 열 가지 재앙(다섯 번째 재앙인 가축들에게 생긴 돌림병과 여섯 번째 재앙인 사람들에게 생긴 악성 종기는 전염병의 재앙이라고 할 수 있다)에서 드러난 야훼의 파괴적인 힘은 언약을 어긴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emancipation)하여 언약을 맺고자 하는 야훼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힘의 실행은 이사야서(2:12-17)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두 본문은 “야훼의 의도와 상반되는 어떤 역사적인 질서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파괴적인 방식으로 반대할 수 있는 야훼의 능력과 결의를 나타낸다”[17]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세 번째 가능성은 “자유 안에서 실연되는 야훼의 거룩함(YHWH’s Holiness enacted in Freedom)”이다.[18] 앞의 두 가지 경우가

---

14) Walter Brueggemann, *Virus as a Summons to Faith: Biblical Reflections in a Time of Loss, Grief, and Anxiety* (Eugene, OR.: Cascade Books, 2020), 1-19. 한국에서는 이 책의 3장 “Until the Dancing Begins Again”을 제목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번역출판되었다. 월터 브루그만,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 신지철 옮김 (서울: IVP, 2020).

15) Brueggemann, *Virus as a Summons to Faith*, 2-5.

16) Brueggemann, *Virus as a Summons to Faith*, 5-10.

17) Brueggemann, *Virus as a Summons to Faith*, 10.

18) Brueggemann, *Virus as a Summons to Faith*, 10-14.

아니더라도 구약성서에서는 전적으로 신의 거룩함을 자유롭게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욥의 고난이다. 신은 욥의 고난에 관해 직접적인 답을 내어 주지 않고, 단지 자신의 초월성과 거룩함만을 드러낸다(욥기 38:1-11). 그리고 욥은 자신의 앞에 드러난 신의 권능에 관하여 그때까지 제시했던 모든 항변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받아들인다. 여기에서 신의 거룩성은 "우리가 가진 최선의 설명을 부정하고 도전하고 그 결과 신의 힘은 이 세상에서 환원될 수 없는 실재"[19]로 드러난다.

프랑코이스 톨미(Francois Tolmie)와 리안 벤터(Rian Venter)는 부르그만의 성서 해석에 기반한 코로나에 대한 반응의 핵심이 위의 세 해석학적 가능성에 있다고 보지만,[20] 그리고 대부분의 성서학자는 이러한 점을 목표로 하겠지만,[21] 실제로 그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코로나가 이러한 세 해석학적 틀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 그 자체이다. 부르그만은 이 세 해석틀을 제시하면서도 코로나의 스트레스, 불안, 위험에 마주한 긴급한 상황에서 과학적인 지식의 우선성과 유용함을 강조한 다음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주장한다:

> 왜 우리는 사실 우리의 에너지와 관심이 더 직접적인 문제들에 집중된 시기에, 성서적 믿음의 범주들에 신경을 쓰고 있는가? 그 답은 명확하고 단순하다. ... 우리의 얽매이지 않은 상상력은 최종적으로 혹은 완전하게 우리의 스트레스, 불안, 위험의 직접성에 담기지 않는다. 이런 부담되는 직접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설명하고 통제하려는 계몽주의의 인과론적 사고에 완전히 담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있다. 신의 세계 안에서 우리의 삶에는 그 이상의 것(*more than that*)과 그것과는 다른 것(*other than that*)이 있다.[22]

---

19) Brueggemann, *Virus as a Summons to Faith*, 14.

20) Tolmie & Venter, "Making sense of the COVID-19 Pandemic from the Bible," 2.

21) 안명준 외 17명,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72-116. 코로나와 관련된 성서학적 논문을 실은 네 명의 성서학자는 모두 코로나에 관한 성서학적인 해석틀을 제시하고 그에 관한 교회의 대응 방안과 신자들의 태도에 관한 신앙적인 조언을 하는 데에 모든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22) Brueggemann, *Virus as a Summons to Faith*, 16-17.

부르그만은 코로나 상황에서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지식의 유용함을 긍정하면서도 동시에 코로나가 드러내는 것은 계몽주의로부터 형성된 세속의 세계가 가진 한계성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유대교 신자인 피터 블록(Peter Block)의 주장을 빌어 “바이러스는 소비주의를 끝내는 신의 방법이며, 세계화 내러티브의 종말이다”라고 선언한다.[23] 이러한 주장은 신이 코로나를 사용하여 인간들의 잘못을 벌한다는 신화적인 주장이 아니다. 코로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자연과 세계를 모두 설명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계몽주의와 현대의 신화를 깨뜨리고, 다시 계몽주의 이전의 성서적 해석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의미이다. 더 나아가 코로나에 직면하여 계몽주의 이후의 세속적 방법은 결코 답이 될 수 없으며, 우리는 그 답은 오히려 계몽주의 이전에 받아들여지던 성서적 사고방식, 더 궁극적으로는 신의 변하지 않는 성실한 사랑(חֶסֶד, hesed)에 있으며,[24] 결국 자아중심적인 계몽주의적 사고에서부터 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임을 주장한다.[25]

우리는 여기에서 밀뱅크의 코로나에 관한 급진 정통주의적 주장이 부르그만의 코로나에 마주한 구약신학적 반성과 세속화에 대한 비판, 그리고 신적 가능성으로의 전환이라는 주제에서 만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볼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점도 있다. 부르그만은 성서 내러티브 자체에서 근대의 세속화에 대한 비판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만, 밀뱅크는 세속화에 대한 비판의 근거와 대안을 교부 전통, 특별히 아우구스티누스 안에서 재해석된 플라톤주의의 참여에서 찾는다. 즉 그의 세속화 비판이론의 근거는 성서 내러티브 자체라기보다는 성서 내러티브에 대한 특정한 해석에 기반하고 있으며, 그 비판의 한계는 결국 그가 의지하고 있는 해석 전통의 한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황덕형은 밀뱅크가 우리의 모든 현실을 “신학적 존재론”으로부터

---

23) Brueggemann, *Virus as a Summons to Faith*, 17.

24) Brueggemann, *Virus as a Summons to Faith*, 21-26.

25) Brueggemann, *Virus as a Summons to Faith*, 46-56.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는 사실 신학 안에서는 새로울 필요가 없는, 성서와 복음을 바탕으로 한 신학이라면, 당연히 추구해야 할 과제라고 평가하면서, 오히려 밀뱅크의 급진 정통주의는 충분히 급진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한다.[26] 사실 앞에서 급진 정통주의의 패러다임을 제공하는 것으로 소개했던 아우구스티누스의 전통과 함께 급진 정통주의가 기반으로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전통은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로부터 비롯된 존재 유비(analogia entis)이다.[27] 황덕형이 이러한 비판을 하는 기저에는 사실 가톨릭 신학과 개신교 신학 사이의 차이, 더욱 구체적으로는 개신교 신학자인 칼 바르트가 『교회 교의학』(*Church Dogmatics*) I/1 서문에서 "존재 유비는 적그리스도의 발명품이다"[28]라고 선언한 것에서 촉발된 개신교와 가톨릭 사이의 존재 유비와 신앙 유비(analogia fidei) 사이의 논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9] 즉 개신교적 혹은 개혁교회적 입장에서 이미 세계에 주어져 있는 은혜를 강조하는 존재 유비의 색채가 강한 참여의 신학적 비전은 성서에 나타난 신적 계시의 사건으로부터 충분히 직접적으로 출발하지 못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충분히 급진적이지 못한 철학적(구체적으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으로 채색된 접근이라는 의미이다.

이렇게 철학적으로 채색된 존재 유비의 전통에 기반한 참여 존재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세속화의 극복에 너무 강조점을 둔 나머지,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은혜만큼 중요한 주제인 타락과 죄의 문제에 관하여 충분한 고려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임형권은 개혁주의 전통의 관점에서 밀뱅크의 신학의 핵심 주제를 "탈신성화

---

26) 황덕형, 「포스트모던 시대의 신학의 가능성: 밀뱅크의 급진적 정통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조직신학논총』 28 (2010): 333.

27) 황덕형, 「포스트모던 시대의 신학의 가능성」, 334. 존재유비에 관한 밀뱅크의 해석은 다음의 책을 참조하라. John Milbank and Catherine Pickstock, *Truth in Aquinas* (London: Routledge Press, 2001).

28) Karl Barth, *Church Dogmatics,* I/1, trans. G.W. Bromiley and T.F. Torrance (New York: Continuum, 2004), xiii.

29) 이 논쟁에 관한 가장 최근의 논의를 위해서 다음 책을 참고하라. Thomas Joseph white, ed., *The Analogy of Being: Invention of the Antichrist or the Wisdom of God?* (Grand Rapids, Mich.: Wm. B. Eerdmans Publishing Co., 2011).

(disenchantment)된 세계를 다시 재신성화(resacralization)”하는 것으로 파악하면서 이는 교회와 세계를 신성화하려는 것을 반대했던 종교개혁 전통 혹은 개혁주의 전통으로부터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한다.[30] 그는 개혁주의 전통도 피조물의 선함을 인정하지만, 밀뱅크보다는 타락의 정도를 더욱 크게 보기 때문에 밀뱅크의 신성화의 계획은 자칫하면 개혁주의 전통에서 중시하고 있는 죄의 문제를 간과하고 교회와 성직을 이상화하고 신성화할 수 있는 위험을 지닌다고 지적한다.[31] 마지막으로 급진 정통주의를 개혁신학적인 관점에서 전유하고자 하는 K. A. 스미스도 밀뱅크의 아퀴나스 해석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일반 은총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죄에 의한 타락의 문제를 급진적으로 보지 못한 것을 급진 정통주의에서 개혁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32] 정리하자면, 급진 정통주의의 세상의 재신성화를 통한 세속화의 극복이라는 비전은 기독교의 중요한 주제인 인간의 죄와 타락을 가볍게 보며, 이로 인해 교회와 신앙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만 평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즉, 밀뱅크가 세속화의 관점에서만 교회를 닫는 문제를 이야기한 것은 그가 교회와 신앙을 이상적으로 성스러운 것으로만 보아 교회와 신앙 자체에 대한 비판의 가능성을 차단할 경향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루터의 말처럼 신앙인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iustus et peccator)이며 이러한 이유에서 비판을 받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밀뱅크가 자본과 권력의 지배로 인한 세속화의 관점에서 예배의 문제를 분석한 것은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 폐쇄에 관한 종교적 입장에서의 비판적 접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세속화를 극복하기 위한 세상의 재신성화라는 비전은 그가 근거하고 있는 근대 이전의 신학적 패러다임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과 인간에 관한 지나치게 긍정적인 평가를 무비판

30) 임형권, 「유목공동체(nomad city)로서의 교회: 존 밀뱅크(John Milbank)의 아우구스티누스적 교회론」,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00 (2016): 59.

31) 임형권, 「급진 정통주의 신학에 대한 개혁신학적 평가와 비판: 존 밀뱅크를 중심으로」, 『개혁논총』 29 (2014): 199-200; 「유목공동체(nomad city)로서의 교회」, 59-60.

32) K. A. Smith, *Introducing Radical Orthodoxy*, 161-166.

적으로 수용하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주장은 기독교 신학으로 세속적 학문 전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야심 가득한 비전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리차드 로버트(Richard Robert)는 이러한 생각을 비판 없이 받아들인다면 이는 신학의 지성적 게토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한다.[33] 따라서 우리는 코로나 기간에 일어나고 있는 종교시설 폐쇄에 관한 밀뱅크의 세속화에 근거한 분석을 받아들이면서도, 신학과 교회를 향한 비판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일반 학문에서 제기하는 신학적 접근의 한계를 인정하는 상호 비판적인 입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밀뱅크가 코로나와 관련하여 제기한 두 번째 주제인 생태 위기의 문제를 분석해 보자.

Ⅲ. 코로나 팬데믹과 생태 위기

1. 생태 신학과 선물의 호혜성

사실 밀뱅크의 주요 관심사 중에 생태 신학은 포함되지 않는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밀뱅크는 생태학 혹은 생태 신학의 전제를 공유하지 않는다. 그가 「재난들 사이에서」 이전에 생태 신학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견해를 밝힌 유일한 글은 「온실 바깥으로」(“Out of Greenhouse”)[34]이다. 그는 이 글에서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back to nature)는 혹은 자연과 연합된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해야만 현대의 생태학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생태학의 접근이 이미 근대성과 자본주의의 논리 안에서 탄생했다고 주장한다.[35] 근대성 안에서 근대의 이성을 극복하기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낭만주의 혹은 종교적 낭만주의도 자연이 근대 이성의

33) Richard H. Roberts, “Transcendental Sociology?: a Critique of John Milbank’s *Theology and Social Theory beyond Secular Reason*,”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46 (2009), 535.

34) John Milbank, “Out of the Greenhouse,” *The New Blackfriars* 74 (1993): 4-14.

35) Milbank, “Out of the Greenhouse,” 4.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간과했고, 현대의 “녹색 의식(green consciousness)”은 이러한 근대 낭만주의를 계승한 것이다.[36] 그 기독교적 형태인 “생태 신학(eco-theology)”에서 자연으로 돌아감은 자연의 신성화로 발전하였다.[37] 생태 신학이 제시하는 신은 자신의 무한한 힘으로 인간과 자연을 죄와 고통으로부터 해방하는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저 자연과 인간에 공감하고 함께 고통받으면서 “우리는 모두 함께이다”라고 말하는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이다.[38] 밀뱅크는 결론적으로 오늘날의 “녹색 의식”과 생태 신학이 제시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푸념이라고 비판한다.[39]

그가 생태학에 대한 처음 입장을 제시한 이후 거의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쓴 「재난들 사이에서」는 「온실 바깥으로」에서의 비판의식을 바탕으로 코로나와 관련된 급진 정통주의적인 생태학적 대안을 다음과 같이 선언적으로 제시한다:

> 인간과 대립하는 단일하고 연합된 자연이라는 견지에서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는 생태적이지 않다 … 우리는 많은 자연의 행위자들 가운데 하나이며, 자연의 행위자로서 (아마도 심지어는 성서적이고 감독하는) 자연적 역할을 가지고 있다. 핵심은 자연을 지배하거나 해방하는 자유주의적인 대안이 아니라, 다른 자연의 행위자들 사이의 그리고 열린 인간 주체와 상대적으로 더 고정된 자연의 행위자들 사이의 올바른 균형을 가지는 공동체적인 대안이다. 그들은 우리의 자유롭고 융통성 있는 양육이 필요하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주는 자극과 포용 능력이 필요하다.[40]

여기에서 그는 기존의 자연과 인간이라는 기존의 이분법적인 구도를 탈피하면서, 그 대안으로 인간과 자연 행위자들 간의 공동체적인 관점을 그 대안으로 제시

36) Milbank, “Out of the Greenhouse,” 6-7.
37) Milbank, “Out of the Greenhouse,” 8.
38) Milbank, “Out of the Greenhouse,” 11.
39) Milbank, “Out of the Greenhouse,” 13.
40) Milbank, “Between Catastrophes,” 85.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공동체적인 관점에서는 자연은 “시간적이지만 자기-재생적(self-renewing)이기 때문에 연속물로서 무한”하지만 인간의 간섭으로 부족하게 되었다는 생태학 혹은 생태 신학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41] 왜냐하면 이 부족함(scarcity)의 개념은 “경쟁적인 수요와 이윤의 증가를 자극하고 중앙집권화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간적으로 생산된 것,” 즉, 자본주의와 국가에 의한 인간 삶의 착취를 자연에 투사한 것이기 때문이다.[42] 이러한 방식으로 그는 앞 장에서 이야기한 세속화의 내용인 자본과 권력이라는 테마를 다시 제시하면서, 생태 신학의 핵심적인 주장인 자연으로 돌아감이 근대성의 프레임 안에 갇혀 있음을 재확인한다.

더 나아가 그는 「온실 바깥으로」에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던, 급진 정통주의적인 생태학적 패러다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신학은 인간 창조성이 외부적으로 창조적인 신의 행위뿐만 아니라 비할 데 없이 역동적이면서도 비할 데 없이 평온한 삼위일체의 삶에 참여한다는 견지에서 이 모든 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43] 근대성의 한계 안에 갇힌 생태 신학의 한계는 무한한 신에로의 참여라는 세속성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과 같은 패러다임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그가 참여라는 개념을 삼위일체적으로 구체화하면서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삼위일체론적인 확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밀뱅크의 주요 신학적 주제의 하나인 선물(gift)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밀뱅크의 선물 개념에 관한 논쟁은 데리다의 선물에 대한 허무주의적인 접근(궁극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선물은 불가능하며, 가능하려면 주는 자의 즉각적인 죽음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입장)[44]을 신학적으로 발전시킨 장-뤽 마리옹(Jean-Luc Marion)의 선물 개념을 비판한 데에서

41) Milbank, “Between Catastrophes,” 86.

42) Milbank, “Between Catastrophes,” 86.

43) Milbank, “Between Catastrophes,” 86.

44) 데리다의 선물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하라. Jacques Derrida, *The Gift of Death*, trans. David Wills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 특별히 30-31.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다.[45] 그는 이 논쟁에서 자신의 희생을 수반하는 허무주의적인 선물의 개념보다는 삼위일체에 기반한 호혜적인 교환이 이 문제의 적절한 해답이라고 주장한다. 선물 개념 논쟁은 밀뱅크의 급진 정통주의를 자체를 이해하는 데에 분명 중요한 작업이기는 하지만, 생태학적인 입장에서의 삼위일체적인 패러다임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화해됨』(*Being Reconciled*) 서문에서 창조를 선물의 관점에서 삼위일체적으로 묘사한 내용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정확하게 왜 ‘선물’인가? 주된 이유는 선물은 언어와 관계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신학의 모든 주제와 관계된 일종의 초월론적인(transcendental) 범주이다. 창조와 은혜는 선물이다; 성육신은 최고의 선물이다; ... 성령의 최고의 이름은 선물(donum)이다.”[46] 밀뱅크는 선물을 모든 신학의 주제에 적용되는 초월론

---

45) 이에 관하여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John Milbank, “Can a Gift be Given? Prolegomena to a Future Trinitarian Metaphysic,” *Modern Theology* 11-1 (1995): 119-161; “The Soul of Reciprocity Part One: Reciprocity Refused,” *Modern Theology* 17-3 (2001): 335-391; “The Soul of Reciprocity Part Two: Reciprocity Granted,” *Modern Theology* 17-4 (October 2001): 485-507. 이 선물 논쟁에 관한 개관과 평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Kevin Hart, *Postmodernism: a Beginner’s Guide* (Oxford: Oneworld, 2004), 129-154. 케빈 하트(Kevin Hart)는 이 논쟁에 관하여 밀뱅크가 데리다를 직접 비판하기보다 그의 선물 개념을 신학적으로 전유하고 있는 마리옹을 비판에 더욱 집중하는 이유는 마리옹 선물 개념이 기독교적이므로 그가 가진 선물 개념에 더욱 근접해 있기 때문인 동시에, 그러한 이유로 자신이 궁극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호혜적 교환의 비전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151-152). 이 둘의 차이를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마리옹에게 있어 선물은 신적 사랑이지만, 밀뱅크는 오직 삼위일체적 존재론만이 신적 사랑을 선물로 이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152). 그러나 하트는 밀뱅크의 논의에서 어떻게 이런 삼위일체론적인 존재론이 이미 자본주의와 권력에 의해 세속화된 포스트모던적 세계 가운데에서 실질적으로 가능한가는 명확하지 않으며, 그러한 이유로 교부신학과 중세 전통에서 형성된 기독교 세계에 대한 향수에 불과할 수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153-154). 이는 앞서 개혁신학자들이 밀뱅크의 이론이 현실 세계의 타락과 죄를 과소평가한다는 비판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포스트모던적 상황에서의 마리옹과 밀뱅크의 제안에 관한 평가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Thomas A. Carlson, “Postmetaphysical Theology,”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Postmodern Theology*, ed. Kevin J. Vanhooz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58-75; Stephen Long, “Radical Orthodoxy,”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Postmodern Theology*, ed. Kevin J. Vanhoozer, 126-148.

46) John Milbank, *Being Reconciled: Ontology and Pardon* (London: Routledge, 2003), ix.

적인(보편적인) 범주로 사용하면서 우선적으로 삼위일체의 한 위격인 성령과 연결한다. 물론 그는 이전 작품인 『낯설게 된 말씀』(*The Word Made Strange*)에서는 말씀(verbum)을 초월론적인 범주로 사용하면서 이를 성자와 관련시켰다. 그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초월론적인 범주를 시도하는 이유는 그의 가장 주된 신학적 주제인 '참여'를 "언어, 역사, 문화 즉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영역"으로 확장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이러한 주제를 다루면서도 상대주의적인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신적 생산(poesis, production)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47] 그리고 그가 선물의 카테고리로 참여의 개념을 확장하는 이유는 인간의 삶은 생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환으로도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밀뱅크는 이 지점에서 이러한 인간의 삶의 근거로서 삼위일체 안의 생산, 선물, 그리고 호혜적 교환을 묘사한다:

>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성령인 선물(donum)은 값없이 주어지는 일방적인 선물(이것이 또한 그렇기는 하지만)일 뿐만 아니라 그에 더하여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영원한 교환의 실현이기도 하다. 이 교환은 아들의 생산(poesis)으로부터 비롯되지만, 그와 동등하게 아들은 성령이신 의지(욕망)의 발출(procession)을 통해서만 출생한다. 성령은 교감을 위한 의지이며, 양자 간의 닫힌 교감을 넘어서서 무한하고 다중적인 호혜성을 찾는 의지이다.[48]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은 기본적으로 선물인 동시에 삼위일체의 무한하고 영원한 호혜적 교환에 근거한 유한한 호혜적 교환으로 이해될 때, 자기희생적이고 허무주의적인 선물 이해에 빠지지 않고서도 존재의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생산과 교환이 궁극적으로 의미를 획득하는 유일한 길은 삼위일체 안에 있는 영원한 생산과 호혜적인 교환에 참여함으로써이다.

이러한 삼위일체적 참여의 존재론을 기반으로 밀뱅크는 생태학적 문제에 관하여 다음의 세 가지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근대의 생태학적 문제를 해결

47) Milbank, *Being Reconciled,* ix.

48) Milbank, *Being Reconciled,* x.

할 수 있는 올바른 생태학적 패러다임은 인간의 창조성이 성부와 성자 사이의 영원한 생산 및 성령을 통한 영원한 선물과 호혜적 교환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 삼위일체는 인간을 비롯한 자연의 여러 행위자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창조적 활동을 변증법적으로 무효화하는 헤겔적인 절대성(the Absolute)도,[49] 기존의 생태학적 접근의 필연적 종착지인 자연 안에 내재하는 절대성도 아니다.[50] 기독교의 신은 “보편성과 개별성,” “단일성과 복수성,” “과정과 사물,”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대립 쌍을 초월해 있는 역설(paradox)이다.[51] 둘째, 급진 정통주의적인 생태학적 패러다임은 생태 문제에 있어 인간 중심성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52] 인간이 자연을 이루는 여러 행위자 가운데 하나이며, 인간의 행위는 다른 자연적 행위자들에 의존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은 이 자연 안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좋은 의미이든 혹은 나쁜 의미이든) 존재이다. 셋째, 따라서 현재의 생태학적 위기에서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자연의 행위자들도 구하려면, “우리는 역설적으로 그들의 자기-비하(포기)적인(kenotic) 구세주들이 되어야 한다. 즉 구성적인 조정자인 동시에 그러나 또한 그들과의 겸손한 동반자로서, 그리고 신비롭게 모든 창조물을 함께 모으는 신의 창조적 지혜에 맞추어서 그런 구세주들이 되어야 한다.”[53]

인간을 생태 문제에 있어 구세주로 명명하는 밀뱅크의 제안은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상당한 신뢰를 내포하고 있다. 물론 현대 기독교의 내재적인 신이해를 근대 이전의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의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하여 초월적인 방향으로 재해석하는 과정[54]에서 그에 참여하는 인간 본연의 내재적 가능성을 크게 평가

---

49) 헤겔적인 삼위일체론적 접근에 대한 밀뱅크의 비판에 관하여는 슬라보예 지젝(Slavoj Žižek)의 헤겔적인 삼위일체론 이해에 관한 밀뱅크의 비판을 살펴보라. John Milbank, “The Double Glory, or Paradox versus Dialectics,” in Slavoj Žižek and John Milbank, *The Monstrosity of Christ: Paradox or Dialectic?* (Cambridge, MA: MIT Press, 2009), 110-233. 특별히 176-210을 보라.

50) Milbank, “Between Catastrophes,” 87.

51) Milbank, “Between Catastrophes,” 88.

52) Milbank, “Between Catastrophes,” 86.

53) Milbank, “Between Catastrophes,” 88.

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자본과 권력에 의한 세속화의 문제에서 인간적인 가능성을 강조하는 태도에 관해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2. 선물의 호혜성과 일방성 그리고 코로나의 비판적 함의

밀뱅크의 접근을 비판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다른 형태의 신학적 선물 개념을 하나 살펴보자. 사실 선물을 호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유일하게 적합한 길은 아니다. 시카고 대학의 캐서린 태너(Kathryn Tanner)는 『은혜의 경제』(*Economy of Grace*)에서 밀뱅크와 픽스톡 등의 급진 정통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호혜적인 관계에 기초한 선물 개념은 오늘날의 파괴적인 경제적 교환관계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비판한다.[55] 그녀는 오히려 선물의 특성을 일방적(unilateral)이고 무조건적(unconditional)으로 보면서[56] 참여보다는 감사와 찬양 가운데 신의 보편적(universal) 선물에 헌신하는 길을 주장한다.[57] 그녀의 선물에 대한 접근은 신의 역사에 대한 인간의 참여를 강조하기보다는 오직 신으로부터 비롯된 일방적인 선물로부터 시작하는 세속화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필립 라스무센(Filip Rasmussen)에 따르면 기독교의 선물의 개념에는 수직적인 측면과 수평적인 측면이 있는데 수직적인 측면은 신으로부터 인간에게 오는 선물을 의미하고, 수평적인 측면은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선물의 사건을 지시한다.[58] 그는 태너의 선물에 관한 접근을 신의 선물로부터 시작하는 "하향식

54) Amene Mir, "A Panentheist Reading of John Milbank," *Modern Theology* 28-3 (2012), 526-527. 이런 관점에서 아멘느 미르(Amene Mir)는 밀뱅크의 신의 초월성에 근거한 급진 정통주의적인 신관에서 현대 기독교 여러 사상가들이 초월과 내재를 동시에 담보하기 위해 선택하는 범재신론(panentheism)의 가능성을 보기도 한다. 즉 아퀴나스의 유비적 차이에 기반한 신과 창조 사이의 관계는 "쌍성적(dipolar)이면서도 비대칭적이며, 범재신론적"이라고 볼 수 있다(551).

55) Kathryn Tanner, *Economy of Grace*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2005), 49.

56) Tanner, *Economy of Grace,* 63-72.

57) Tanner, *Economy of Grace,* 71.

58) Filip Rasmussen, "The Gift in Theology," *Studia Theologica – Nordic Journal of Theology* (Jun. 2021): 9-10.

(top-down)”으로, 밀뱅크의 선물에 대한 접근을 역사를 통한 “상향식(bottom-up)”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한다.[59] 물론 관계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태너도 밀뱅크가 강조하는 참여와 호혜성의 개념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지만, 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방적인 측면에 대한 강조가 더 분명하다고 평가한다.[60] 이러한 점에서 그는 태너와 밀뱅크의 차이는 크지 않으며, 오히려 태너가 선물의 무조건성(unconditionality)을 강조하는 동시에 호혜성과 참여의 개념을 자신의 논의에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61]

그러나 태너가 하향식 접근을 취하는 이유는 밀뱅크의 접근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위험 때문으로 보인다. 필자가 보기에 태너의 선물 개념이 밀뱅크의 선물 개념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지점은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태도이다. 태너는 『예수, 인류와 삼위일체: 간략한 조직신학』(*Jesus, Humanity and the Trinity: A Brief Systematic Theology*)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사실 우리의 모든 기도 찬양 그리고 예배 안에서 우리는 예수가 그러했듯이 우리의 삶을 아버지에게로 이끌어 간다. 그리고 이것은 아버지 자신의 우리에게 주시는 행위를 반영하는 회귀 안에서 일어난다.”[62] 겉보기에 호혜성과 참여의 문제를 언급하는 듯한 이 문장에서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반응과 회귀가 전적으로 신의 행위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태너는 인간의 모든 행위의 근원에 인간 자체의 가능성이 아닌 신적 가능성을 두고자 하는 의도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에 비해 앞에서 밀뱅크의 삼위일체적 선물 개념에 기초한 생태학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분명히 인간 자체의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함축하고 있으며, 바로 이 지점에서 태너는 밀뱅크의 입장이 결코 자본과 권력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과 세속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사라 코클리(Sarah Coakley)는 밀뱅

59) Rasmussen, “The Gift in Theology,” 10.

60) Rasmussen, “The Gift in Theology,” 12.

61) Rasmussen, “The Gift in Theology,” 12-3.

62) Kathryn Tanner, *Jesus, Humanity and the Trinity: A Brief Systematic Theology* (Minneapolis, MN: Fortress, 2001), 355.

크의 참여와 선물의 개념은 인간 교환관계에 내재해 있는 차이와 불평등을 삼위일체에 투사하여 선물이 가지고 있는 변혁적인 힘을 약화할 위험을 함축하고 있다고 본다.[63] 즉, 밀뱅크의 선물 개념에는 세속적인 교환과 불평등의 가능성이 발현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밀뱅크의 생태학적 문제에 대한 접근도 앞에서 예배당 폐쇄의 문제와 관련하여 개혁신학적 입장에서 제기한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지나친 신뢰와 비판적 계기의 상실이라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인간이 생태학적 문제에 있어 구세주가 될 수 있다는 밀뱅크의 주장은 분명하게 인간의 도덕성과 윤리성 그리고 신학적 해결책에 대한 지나친 신뢰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밀뱅크는 코로나가 가지고 있는 생태학적이고 종교 비판적인 함의를 보지 못하고 코로나의 문제를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보는 잘못을 범한다. 밀뱅크가 코로나 팬데믹이 이전의 재난들과 크게 다를 바 없고 생태계 전체에 미치는 거대한 재난이라기보다는 "인간 삶의 영역에 한정된 상대적으로 작은 생태적 재난"[64]으로 보는 단견에 머무르는 이유는 바로 신학과 인간에 대한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과연 코로나는 이전 생태적인 위기에 비하여 큰 의미가 없으며 종교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사건일까?

이에 관해 신재식은 「코로나 19, 생태계의 위기와 한국교회의 목회적 과제 - 자연 생태계와 문화 생태계 그리고 목회 생태계 맥락에서」에서 다른 해석을 제시한다. 먼저 그는 데이비드 콰먼(David Quammen)의 인수공통 전염병에 관한 책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쇄』(*Spillover: Animal Infections and the Next Human*

---

63) Sarah Coakley, "Why Gift? Gift, Gender, and Trinitarian Relations in Milbank and Tanner,"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61-2 (2008): 232. 코클리는 태너의 선물 개념도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태너의 일방성에 대한 강조와 교환 개념의 거부는 경쟁과 폭력적 관계를 피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신학적으로 삼위 사이의 차이를 소거하고 그 결과 인간들 사이의 성적 차이, 가난과 부의 차이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233-4). 그러나 코클리는 성적 차이의 입장에서 이 둘을 비판하는 데에 집중하다가 태너와 밀뱅크의 차이가 가지는 함의를 적절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64) Milbank, "Between Catastrophes," 78-80.

Pandemic)[65]를 바탕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수공통감염증의 하나임을 보여준다.[66] 코로나가 인수공통감염병의 하나라면, 밀뱅크가 주장하듯이 코로나 팬데믹은 인간에게만 한정된 작은 수준의 생태적 문제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수공통감염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류로 인한 급속한 생태계 파괴로 인하여 미생물들의 서식지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다.[67] 미생물들의 서식지 혹은 숙주로 삼고 있던 동물의 개체 수 감소 및 멸종 때문에 미생물들은 새로운 서식지를 찾을 수밖에 없고 바이러스를 포함한 미생물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새로운 서식지 혹은 숙주는 현재 80억에 육박하여 지구의 모든 종 중 최대의 개체 수를 자랑하고, 50퍼센트 이상이 밀집된 환경인 도시에서 살아가며, 전 지구적으로 촘촘하게 일일생활권으로 연결된 인간 종일 수밖에 없다.[68] 이러한 이유로 최근의 새로운 감염병들은 거의 인수공통감염병일 수 있다고 콰먼은 생각한다.[69] 지금까지의 여러 연구 결과를 살펴볼 때, 코로나는 분명 인수공통감염증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코로나 팬데믹은 직간접적으로 생태계 자체의 위기와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 일부 의혹이 제기된 의도적인 바이러스의 출현과 전파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코로나 팬데믹은 인간의 무분별한 확장이 가져온 명백한 생태학적인 위기를 드러내는 분명한 징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신재식은 밀뱅크처럼 코로나 팬데믹을 단순히 인간의 삶을 잠시 멈추게

---

65) 데이비드 콰먼,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쇄』, 강병철 옮김 (서울: 꿈꿀 자유, 2017). 인수공통감염병이란 “사람에게 전염되는 동물의 전염병”을 의미한다(18). 가장 잘 알려진 인수공통감염병으로는 “마르부르크병(1967), 라사열(1969), 에볼라(1976), 에이즈 바이러스(1981), 에이즈 바이러스-2(1986), 신 놈브레 바이러스, 헨드라(1994), 조류독감(1997), 니파(1998), 웨스트나일(1999), 사스(2003), 돼지독감(2009)”이 있으며(50), 최근의 코로나 19도 박쥐로부터 비롯된 인수공통감염증이다.

66) 신재식, 「코로나 19, 생태계의 위기와 한국교회의 목회적 과제 – 자연 생태계와 문화 생태계 그리고 목회 생태계 맥락에서」, 『코로나 19와 한국교회의 회심: 신학·목회·선교의 과제』, 황홍렬 편집 (서울: 동연, 2020), 76-79.

67) 신재식, 「코로나 19, 생태계의 위기와 한국교회의 목회적 과제」, 81-82. 그는 다음을 참조하고 있다. 콰먼,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쇄』, 51-53.

68) 신재식, 「코로나 19, 생태계의 위기와 한국교회의 목회적 과제」, 82-83.

69) 콰먼,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쇄』, 56.

하는 전염병의 하나가 아니라, 문화 생태계, 더 나아가 종교 생태계에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끼치는 큰 사건으로 분석했다. 인류는 현재 문자 기록 시대에서 디지털 미디어 시대로 전환하는 단계인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2년여간의 비대면 생활은 이러한 인류문화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했으며, 이는 종교 생태계에까지 근원적인 영향을 미쳤다.[70] 이는 단순히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예배에 관한 논란과 지속성에 관련된 여러 논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71] 더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는 기독교 안의 신학적 담론 지형과 권력구조의 변화이다. 근대 이후 기독교 특히 개신교는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성장한 '책의 종교'라고 할 수 있다.[72] 책의 시대에서 멀티미디어 시대로의 변화는 책의 시대에 형성된 성직자 중심의 닫힌 권위의 구조를 열린 구조로 변형시킬 것이다.[73]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기독교 안으로 더욱 깊숙이 들어온 멀티미디어화 때문에 이러한 기독교 생태계의 변화는 가속화될 것이며, 결국 성직자 중심주의, 그리고 예배당 중심주의를 탈피하게 될 것이다.[74] 신재식은 더 나아가 이러한 움직임은 책과 문자의 패러다임에 기반한 기존의 권위 구조로부터 비롯된 성스러운 공간과 속된 공간 그리고 성스러운 사람과 속된 사람의 이분법을 약화함으로써, 기독교 특히 한국 기독교의 '성직자 예외주의'와 '예배당 예외주의'가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내다본다.[75] 즉 코로나 팬데믹은 단순히 일시적인 종교활동의 멈춤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었던 초연결 멀티미디어 시대의 거대한 흐름을 아직 '책의 시대'에 머물러 있던 기독교 생태계 깊숙이 자리 잡게 한 재앙이었으며, 이 재앙 가운데 기독교 안의 담론구조와 신앙생활의 형식 그리고 권력의 구조는 변화될 수밖에

---

70) 신재식, 「코로나 19, 생태계의 위기와 한국교회의 목회적 과제」, 92-94.

71) 코로나 시기에 기독교 안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주제가 비대면 예배의 정당성과 지속성에 관한 논의일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다음을 참조하라. 안명준 외 17명,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203-254.

72) 신재식, 「코로나 19, 생태계의 위기와 한국교회의 목회적 과제」, 94.

73) 신재식, 「코로나 19, 생태계의 위기와 한국교회의 목회적 과제」, 96.

74) 신재식, 「코로나 19, 생태계의 위기와 한국교회의 목회적 과제」, 99-100.

75) 신재식, 「코로나 19, 생태계의 위기와 한국교회의 목회적 과제」, 101-103.

없을 것이다. 이러한 신재식의 분석과 주장을 고려해 볼 때, 밀뱅크의 분석은 존재론적이고 사회비판적인 접근에 지나치게 치우쳐, 팬데믹과 기술의 발전 그리고 문명사적 변동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러한 변화가 신앙과 교회에 미치는 비판적이고 혁명적인 영향에 충분히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

Ⅳ.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밀뱅크의「재난들 사이에서」나타난 코로나 팬데믹에 관한 해석과 제안을 살펴보았다. 먼저 그는 예배당 폐쇄에 관하여 자본과 권력에 의한 현대 사회의 세속화와 모든 존재가치의 경제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성서학자와 신학자에게서는 일반적으로 찾기 어려운, 코로나 시기 종교시설 폐쇄의 사회학적이고 존재론적인 측면을 드러내었다. 그러나 부르그만의 성서적인 입장에서의 세속화에 대한 비판, 더 나아가 여러 개혁신학자의 비판을 고려할 때, 그의 비판은 기독교적으로 충분히 급진적이지 못했으며, 동시에 성스러움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타락과 죄의 문제를 간과하여 신앙과 교회를 지나치게 신성화하는 약점을 드러내었다.

이어서 밀뱅크는 코로나에 대한 생태 신학적 진단에서, 코로나가 가지는 생태학적 의미에 깊이 천착하기보다는, 기존의 생태 신학의 접근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구도의 문제를 주로 다루었다. 현대의 생태신학은 ‘다시 자연으로’라는 핵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사실 생태학적인 문제를 일으킨 근대의 정신/몸 그리고 인간/자연의 이분법적 구도 안에서 형성된 자연의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생태학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밀뱅크는 주장했다. 그에게 있어 코로나에 드러난 생태학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패러다임은 무한한 삼위일체 안에 존재하는 영원한 생산, 선물, 그리고 호혜적인 교환에 인간을 포함한 세상의 유한한 존재자들이 참여하는 비전이었다. 그러나 태너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선물 개념과 비교했을 때, 그의 호혜적인 선물 개념은 인간의 가능성과 신학의 역량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코로나 팬데믹이 가지고 있는 생태학적인 심각성과 인간 문화와 종교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였다. 신재식이 밝혔듯이, 팬데믹은 근대에 들어 가파르게 증가한 생태계 파괴로 인해 생긴 인수공통감염증으로서, 생태계의 위기를 무엇보다 명확하게 드러내는 현상 중의 하나이다. 또한 팬데믹은 단순히 인간 사회를 잠시 멈춘 것이 아니라, 책의 시대에서 멀티미디어의 시대로의 변환에 결정적인 박차를 가함으로써 인간의 사상, 문화, 그리고 종교에 근원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기독교는 닫힌 구조에서 열린 구조로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이며, 기존의 성직자 중심 예배당 중심의 종교형식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론적으로, 밀뱅크의 급진 정통주의적 코로나 팬데믹 분석은 세속화의 문제와 신학적 존재론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보다 더 존재론적으로 근원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코로나 팬데믹이 인류의 문명사에 미친 직간접적 영향을 간과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존 밀뱅크, 급진 정통주의, 코로나 팬데믹, 세속화, 생태 신학, 참여

원고접수일: 2022년 05월 13일
심사완료일: 2022년 06월 27일
게재확정일: 2022년 06월 29일

참고문헌

데이비드 콰먼. 『인수공통: 모든 전염병의 열쇄』. 강병철 옮김. 서울: 꿈꿀 자유, 2017.

신재식. 「코로나 19, 생태계의 위기와 한국교회의 목회적 과제 – 자연 생태계와 문화 생태계 그리고 목회 생태계 맥락에서」. 『코로나 19와 한국교회의 회심: 신학·목회·선교의 과제』, 황홍렬 편집, 73-109. 서울: 동연, 2020.

안명준 외 17명.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서울: 다함, 2020.

임형권. 「유목공동체(nomad city)로서의 교회: 존 밀뱅크(John Milbank)의 아우구스티누스적 교회론」.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00 (2016): 41-64.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664961.

_____. 「급진 정통주의 신학에 대한 개혁신학적 평가와 비판: 존 밀뱅크를 중심으로」. 『개혁논총』 29 (2014): 167-211.

황덕형. 「포스트모던 시대의 신학의 가능성: 밀뱅크의 급진적 정통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조직신학논총』 28 (2010): 311-342. http://systematic.cafe24.com/journal/paper/Journal_28_10.pdf.

Barth, Karl. *Church Dogmatics,* I/1, trans. G.W. Bromiley and T.F. Torrance. New York: Continuum, 2004.

Brueggemann, Walter. *Virus as a Summons to Faith: Biblical Reflections in a Time of Loss, Grief, and Anxiety.* Eugene, OR.: Cascade Books, 2020.

Carlson, Thomas A. “Postmetaphysical Theology.”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Postmodern Theology,* edited by Vanhoozer, Kevin J., 58-7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Coakley, Sarah. “Why Gift? Gift, Gender, and Trinitarian Relations in Milbank and Tanner.”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61-2 (2008): 224-235. Doi:10.1017/S0036930608003979.

Derrida, Jacques. *The Gift of Death*, trans. Wills, David.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

Hart, Kevin. *Postmodernism: a Beginner’s Guide.* Oxford: Oneworld, 2004.

Long, Stephen. “Radical Orthodoxy.”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Postmodern Theology,* edited by Vanhoozer, Kevin J., 126-14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Mir, Amene. “A Panentheist Reading of John Milbank.” *Modern Theology* 28-3 (2012): 526-560.

Milbank, John. “Between Catastrophes: God, Nature and Humanity.” In *Pandemic, Ecology and Theology: Perspectives on Covid-19*, edited by Alexander J. B. Hampton, 78-89. London: Routledge, 2021.

_____. “The Double Glory, or Paradox versus Dialectics.” In Žižek, Slavoj & Milbank, John. *The Monstrosity of Christ: Paradox or Dialectic?,* 110-223. Cambridge, MA: MIT Press, 2009.

_____. *Being Reconciled: Ontology and Pardon.* London: Routledge, 2003.

_____. “The Soul of Reciprocity Part Two: Reciprocity Granted.” *Modern Theology* 17-4 (2001): 485-507.

_____. “The Soul of Reciprocity Part One: Reciprocity Refused.” *Modern Theology* 17-3 (2001): 335-391.

_____. “Can a Gift be Given? Prolegomena to a Future Trinitarian Metaphysic.” *Modern Theology* 11-1 (1995): 119-161.

_____. “Out of the Greenhouse.” *The New Blackfriars* 74 (1993): 4-14.

_____. “Postmodern Critical Augustinianism: A Short Summa In Forty Two Responses To Unmasked Questions.” *Modern Theology* 7-3 (1991): 225-37.

_____. *Theology and Social Science: Beyond Secular Reason.* Oxford: Blackwell, 1990.

Milbank, John & Oliver, Simon (eds.). *The Radical Orthodoxy Reader.* London: Routledge, 2009.

Milbank, John & Pickstock, Catherine. *Truth in Aquinas.* London: Routledge Press, 2001.

Milbank, John & Ward, Graham & Pickstock, Catherine (eds.). *Radical Orthodoxy: A New Theology.* London: Routledge Press, 1999.

K. A. Smith, James. *Introducing Radical Orthodoxy: Mapping a Post-secular Theology.* Grand Rapids: Baker Academics, 2004.

Rasmussen, Filip. “The Gift in Theology.” *Studia Theologica – Nordic Journal of Theology* (2021): 1-12. https://doi.org/10.1080/0039338X.2021.1946141.

Tanner, Kathryn. *Economy of Grace.*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2005.

_____. *Jesus, Humanity and the Trinity: A Brief Systematic Theology*. Minneapolis: Fortress, 2001.

Tolmie, Francois & Venter, Rian. “Making sense of the COVID-19 Pandemic from the Bible – Some Perspectives.” *HTS Teologiese Studies/ Theological Studies* 77-4 (2021): 1-9. https://doi.org/10.4102/hts.v77i4.6493.

White, Thomas Joseph (ed.). *The Analogy of Being: Invention of the Antichrist or the Wisdom of God?* Grand Rapids, Mich.: Wm. B. Eerdmans Publishing Co., 2011.

Abstract

A Critical Reflection on John Milbank's "Between Catastrophes"

Kim, Young Won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This paper will analyze and evaluate John Milbank's radical orthodox interpretations and proposals regarding the corona pandemic that appeared in "Between Catastrophes." Milbank interpreted the closure of chapels in response to the Corona situation in the context of the secularization of modern society by capital and power. Although this interpretation reveals the sociological and ontological aspects of the issue, it is not radical enough considering the biblical critique of secularization raised by Brueggemann. Moreover, Reformed theologians contend that he tends to overly sanctify faith and church by overlooking the fall and sin. Milbank argues that eco-theology cannot solve the ecological problem because it uses the concept of nature formed within the modern dichotomous structure. It can be solved only through the radical orthodox vision that finite beings participate in the eternal production, gift, and reciprocal exchange of Trinity. However, considering Kathryn Tanner's unilateral conception of the gift, his analysis focused too much on transcendental ontology, overlooking the seriousness of the ecological problem presented by the corona pandemic as a zoonosis and the gigantic impact of the pandemic as a catalyst for the increasing impact of the digital age on human culture and religion.

Key Words: John Milbank, radical orthodoxy, Corona Pandemic, secularization,

eco-theology, participation